

대학 교양과목 심리학 수업 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의 효과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according to Psychology Course in Liberal Arts University Courses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성격심리학 수업과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의 수업 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145명과 성격심리학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은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차 시에 배운 이론과 함께 영화를 감상한 후 구조적 질문에 맞추어 서술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격심리학의 경우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매주 강의를 진행한 후 1~2개의 짧은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서 감성지능,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수업유형에 따른 결과는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은 감성지능의 요인 중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이 향상되었고,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의 요인 중 인지적 공감과 관점취하기가 향상되었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감성지능과 자기감성이해, 정서인식 명확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에서 여학생이 감성지능, 감성조절이 향상되었고 남학생이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공감, 관점취하기, 상상하기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산업체 및 교육현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은 실습이 포함된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심리학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psychology and healing psychology with film, which are created as liberal arts courses. The participants were 145 students with a healing psychology with film and 117 students with a personality psychology. The former was processed focusing on theory and practice and they were asked to submit descrip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ed question after watching a movie along with the theory learned at each class. The latter was processed focusing on theory, and they were also asked to submit one or two descriptions based on short structured questions after watching instructional videos each class. As a result,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of self-sensitivity, and utilization of sensitivity for the whole group improved. In the case of the healing psychology with film group, emotional intelligence, utilization of sensitivity, and control of sensitivity were improved, while the personality psychology group improved understanding of self-sensitivity.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was improved in both groups, and cognitive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empathy were improved in the healing psychology with film group. Overall,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awareness clarity, and empathy can be improved by education.

Key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Clarity, Empathy, Healing Psychology With Film, Personality Psychology

본 논문은 2021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

email: mfelim@hanmail.net

Received March 5,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Revised April 5,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현대 교육은 인지적 능력에 기반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감정 또는 정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1]. 최근에는 각종 사회문제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정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스피노자(Spinoza)는 감정을 신체의 활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감정은 인지적, 심리적 개념을 초월하여 인간의 역량을 포함하는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하위분야로서의 성격심리학에서는 정서 혹은 감성은 소홀히 다루는 영역이었다. 전통적인 성격 이론 중에서 정서를 강조한 정신분석이론의 경우 정서의 일부인 불안과 우울의 두 병리적 정서에만 집중하여 논의하였으나, 기존의 성격의 정의와는 다르게 Funder[2]는 성격을 개인의 사고와 정서, 행동의 특정한 패턴이라고 보았으며 그런 모든 패턴의 이면에는 감추어 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심리적 기제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30여년 동안 심리학 전반에 걸쳐 정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3] 사람들의 정서내용 및 정서 표현성에서의 개인차에 관련된 연구[4], 정서반응과 적응에 관한 연구[5] 및 정서와 성격을 통합하는 연구[6]들이 진행되고 있다. 성격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감성을 중추적인 역할자로서의 위치를 부여하는 성격이론들이 연구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서지능 혹은 감성지능은 Salovey & Mayer[7]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Salovey & Mayer[7]는 감성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또는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절제 및 활용하여 이에 기반한 삶을 계획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높은 감성지능은 사회인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직 의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기여하거나[8], 정서노동이 요구되는 근무 환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하거나[9],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도 한다[10]. 특히 학습, 업무, 여가 등 모든 분야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감성지능이 개입하기 때문에[11], 현대 사회에서는 감성지능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후 감성지능은 학문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감정의 중요성이 환기되었고, 20년 이상 심리학 및 경영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실무 환경에서 감성지능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8]. 감성지능은 대인관계에서

감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정서인식 자체에 초점을 두는 감성지능과 정서에 대한 인식, 인식 후 조절을 포괄하는 상위정서 개념이 제시되었다.

상위정서 개념 중, 개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서인식 명확성은 감성지능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12]. Gottman의 이론적 모형에서 핵심 개념인 상위정서는 Salovey & Mayer[7]의 감성지능 모형의 첫 단계인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지, 평가, 표현하는 과정과 비슷하며, 특히 타인의 감성을 조절하는 정서 코칭 유형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상위정서와 감성지능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감성지능과 달리 특정한 타인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감성지능은 정서를 인식하는 자체에 중점을 두지만, 상위정서는 정서에 대한 믿음과 철학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실존적인 인지 내용까지 포함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상위정서인 정서인식 명확성은 심리적 통찰 및 자기 이해를 결정하거나[13],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14]. 정서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지칭하는 과정은 보다 반성적인 정서 인식과 점검을 가능하게 하며[15,16], 인지적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7]. 즉, 정서인식 명확성은 과도한 동일시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경험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Salovey & Mayer[7]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즉,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때, 표정을 통해 정서와 의도를 정확하게 추론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18].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개인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19,20],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18]. 즉, 공감능력은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관계양식이 연결되는 범위까지 포함된다[21].

이상에서 고찰한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은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22-27]. 이들 요인은 바람직한 사회생활뿐

아니라 학습 단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감성지능 교육프로 그램인 SEL(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감성지능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40여 개국 교육 부장관에게 발송하였다[28]. 우리나라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학교의 자율적인 시행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교양과목을 통하여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정서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교육자들이 정서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여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방법으로만 정서를 활용하고 있다[29].

인간의 심리에 대한 교육은 기존에는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인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향후에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중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학자인 Daniel Pink[30]는 창의, 정서, 공감 등을 담당하는 우뇌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습의 목적을 인간적 생각을 확대하고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두었다. 즉, 공감능력은 미래 인재가 함양해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을 기존에는 단순히 개인의 정서를 파악하거나 상담심리학에서 중시되는 개념으로 판단하였으나, 미래 사회에서는 타인에게서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신을 모든 이들이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심리학 과목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영화 등의 요소를 접목하여 실습할 수 있는 수업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 정서의 특정 패턴 아래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들을 통찰해 봄으로써 감성지능과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1].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대학생의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은 심리학 수업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설2. 실습을 중심으로 한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은 이론 중심의 성격심리학 수업에 비해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심리학 수업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2020년 2학기에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145명과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11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에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측정도구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과 요청 시 자료를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는 2학기 전 사전 조사와 14학기 후 사후 조사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Fig.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92명(35.1%), 여자 170명(64.9%)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79명(30.2%), 2학년 76명(29.0%), 3학년 55명(21.0%), 4학년 52명(19.8%)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55명(21.0%), 글로벌비즈니스대학 66(25.2%), 바이오생태보건대학 68명(26.0%), 과학기술융합대학 17명(6.5%), 디자인예술대학 56명(21.4%)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92	35.1
	Female	170	64.9
Grade	1st.	79	30.2
	2nd.	76	29.0
	3rd.	55	21.0
	4th.	52	19.8
Major	Social Sciences	55	21.0
	Global Business	66	25.2
	Biotechnology and Health	68	26.0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17	6.5
	Design and Art	56	21.4
All		262	100.0

2.2 연구도구

2.2.1 감성지능

Wong & Law[32]가 개발하고 전유정과 이수범[33]이 변안한 WLEIS(The Wong and Law EI Scale)를 감성지능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정도를 16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는 Likert 7점 척도로 설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감성이해 0.605, 타인감성이해 0.685, 감성조절 0.713, 감성활용 0.854로 모든 요인이 0.605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2.2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14]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13]가 변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중, 연구 목적에 맞게 정서인식 명확성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평소에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653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34]가 개발하고 박성희[35]가 변안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은 총 28문항으로, 상황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으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으로 통합할 수 있다. 공감능력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관점 취하기 0.767, 상상하기 0.767, 공감적 관심 0.781, 개인적 고통 0.780으로 모든 요인이 0.767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2.4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

실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은 영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트라우마, 문제를 발

견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인지행동이론을 영화치료와 접목하여 자각, 자기향상의 과정을 영화라는 대리학습기제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감정,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1학기 15주 중 13주 동안 총 8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수업은 대면수업 과정에서 토론이 실시되도록 설계되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업에 사용한 영화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에서 주제별로 추천하는 영화 목록[36] 중, 연구자의 교육 목적에 따라 의식적으로 영화보기, 치유적 관점-동일시, 관점의 차이 이해하기, 나의 감정 이해하기, 나의 현실적 문제 직시하기, 내면 아이 찾기, 부정적 신념 찾기, 필름 매트릭스와 셀프 매트릭스를 통한 나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기생충, 월플라워, 윈더, 인사이드 아웃, 청춘기록, A Brand New Life/Wild, I Feel Pretty, 인턴 등의 영상물을 관람하였다.

수업은 당일 감상할 영화의 주제에 맞는 이론적 수업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슬라이드에 녹음된 강의를 재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 후, 주제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하는 실습 형태를 접목하였다. 연구대상은 영화를 관람한 후, 1주일간 연구자가 제시한 구조적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뒤, 이메일로 레포트를 제출하였다. 레포트를 제출한 해당 주차에 교수자와 연구대상자 간에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 과정을 대체하였다.

Table 2. Movies used in Cinematherapy Course

Movie	Theme	Purpose	Description
Parasite	Watching a movie with conscious awareness	Find out the hurt through the movie	Finding the trauma and trauma of the characters and analyzing the causes
Wall flower	Healing Perspective-Id entification	Identifying the character in the movie	Identify yourself with the person in the movie, share your feelings, and find ways to solve problems

Wonder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Understanding people's different perspectives	Observing and analyzing various perspectives in the movie and thinking about my relationship
Inside Out	Understanding my feelings	Observing and understanding different emotions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different emotions
Recode of springtime of life	Face my real problems	Observing and applying the problems of the characters in the movie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haracters in the same age group, face my problems and find alternative solutions
A Brand New Life/Wild	Find inner child	Finding inner child and comforting, supporting	Understanding the wounds within me and comforting them to keep in a peaceful state
I Feel Pretty	Finding negative beliefs	Observing the negative convi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movie and connecting them with my convictions	Analyze the negative beliefs and overcoming process of the characters in the movie, and connect with self to find ways to overcome
Intern	Film Matrix and Self Matrix	Identifying my strengths and weaknesses through the analysis of movie characters	Analyze yourself using identification and projection

연구자가 제시한 구조적 질문으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과 싫어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 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선정한 인물과 다른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고찰하며 그런 관계가 형성된 이유, 영화에서 자신이 선정한 등장인물이 문제를 대하는 인식과 해결 방법, 자신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영화 속에서 자신과 관계된 부분, 기억나는 사건이나 상황, 나의 가치관과 신념 등이 있었다.

2.2.5 성격심리학 수업

통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격심리학 수업은 15주

중 13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10주간은 COVID19로 인하여 이론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였고, 매 주차 수업 후, 이론과 관련하여 나의 감정이나 생각나는 사건 혹은 나의 이면의 모습 등 의식, 무의식, 그리고 감정에 관련된 짧은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주간은 온라인 대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주간 수업 중 이론과 자신에게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수업 중 발생한 학생들의 의문에 대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였다.

성격심리학 수업의 목표는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기본적인 성격심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짧은 과제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주차별 커리큘럼으로는 ‘긍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성격은 유전이다(Bowlby 애착이론)?’, ‘우리의 정신을 분석할 수 있다(Freud의 정신분석이론)?’, ‘우리는 모두 나를 방어할 무기를 갖고 있다(Anna Freud의 방어기제)?’, ‘어린 시절이 우리의 성격을 결정한다(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결과물이다(Allport, Eysenck의 특질이론)?’, ‘우리는 모두 가면이 필요하다(Jung의 분석심리학)?’, ‘우리는 모두 열등한 존재이다(Adler의 개인심리학)?’, ‘우리는 모두 주관적이다(Rogers의 사람중심이론)?’, ‘우리는 모두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한다(Erich Fromm의 사회심리학)?’ 등을 진행하였다.

Table 3. Education purpose of each subjects

	Cinematherapy Course	Personality psychology
Theory	-Freud's Psychoanalysis -Ellis's REBT -Beck' Cognitive Therapy -Rogers's Person-centered Therapy	-Bowlby's Attachment theory -Freud's Psychoanalysis -Erikson' Psychosocial developmental theory -Allport & Eysenck's Personality trait theory -Jung's Analytical psychology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Rogers's Person-centered Therapy -Fromm' Social psychology
Purpose	-Personal and mental growth -Systematic emotional healing -Dismantle defence mechanisms and release the suppressed/stored emotions among the	-Understanding me and others -Understanding the patterns of thoughts, emotions, and actions within one's personality -Finding out psychological mechanisms or emotions

	unconscious -Recognize and eliminate negative beliefs -Change the desire for recognition and love into positive emotions	that are hidden or not -Understanding the existence of the unconscious who moves dynamically behind one's personality and rediscover one's own strengths
Method	-Playing recorded lectures -Watch movies apply to theory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ssociate own experience with the movi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negative beliefs -Applying the trauma of the character to me	-Playing recorded lectures -Analyze one's personality according to the theory -Worries and conflicts arising in the application process -Personality type tests such as MBTI, Big 5, and Hippocrates' constitution type -Finding Personas, Shadows and self-identity

3. 분석결과

3.1 전체 집단의 변화

연구대상의 심리학 수업 전후 감성지능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집단에서 감성지능($t=-3.648$, $p<.001$), 자기감성이해($t=-3.288$, $p<.01$), 감성활용($t=-2.974$, $p<.01$) 수준이 향상되었다. 즉, 후천적인 교육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기반한 커리큘럼[37][38]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Table 4.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of entire group

Variables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al intelligence	3.69±0.40	3.84±0.46	-3.648***
Self emotion appraisal	3.88±0.56	4.06±0.56	-3.288**
Other's emotion appraisal	3.95±0.55	4.04±0.57	-1.711
Use of emotion	3.42±0.64	3.62±0.69	-2.974**
Regulation of emotion	3.50±0.78	3.64±0.81	-1.833

** $p<.01$, *** $p<.001$

전체 연구대상의 정서인식 명확성($t=-3.096$, $p<.01$) 수준이 향상되었다. 교육을 통하여 정서인식 명확성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상위정서인 정서인식 명확성 역시 교육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Table 5. Difference in emotion clarity of entire group

Variables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 clarity	3.45±0.42	3.58±0.45	-3.096**

* $p<.05$, ** $p<.01$, *** $p<.001$

전체 연구대상의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t=-2.122$, $p<.05$) 수준이 향상되었다.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캐나다의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39]과 서적, 영화, 연극, 사진 등의 활동[40]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추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Table 6. Difference in empathy of entire group

Variables	Pre-test	Post-test	t-value
Empathy	3.63±0.37	3.69±0.39	-1.803
Cognitive empathy	3.76±0.44	3.85±0.46	-2.122*
Perspective taking	3.75±0.54	3.86±0.54	-1.928
Fantasy	3.76±0.61	3.85±0.60	-1.418
Affective empathy	3.49±0.45	3.52±0.45	-0.864
Empathic concern	3.66±0.59	3.77±0.61	-1.882
Personal distress	3.28±0.63	3.23±0.62	0.735

* $p<.05$, ** $p<.01$, *** $p<.001$

3.2 교양수업별 변화

연구대상의 심리학 수업 유형에 따른 감성지능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감성지능은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t=-3.042$, $p<.01$), 성격심리학($t=-2.112$, $p<.05$) 수업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자기감성이해는 성격심리학($t=-2.765$, $p<.01$) 수업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감성활용은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t=-2.460$, $p<.05$) 수업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감성조절은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t=-2.332$, $p<.05$) 수업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론 중심의 성격심리학 수업은 자신에게 내재된 감정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습 중심의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은 등장인물과의 동일시·투사 과정과 교양된 감정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교수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감정을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Table 7.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psychological subject

Variables	Subject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al intelligence	Exp.	3.70±0.41	3.87±0.46	-3.042**
	Control	3.67±0.40	3.80±0.45	-2.112*
Self emotion appraisal	Exp.	3.95±0.53	4.09±0.52	-1.961
	Control	3.79±0.58	4.02±0.60	-2.765**
Other's emotion appraisal	Exp.	3.95±0.57	4.05±0.54	-1.392
	Control	3.94±0.52	4.02±0.61	-1.018
Use of emotion	Exp.	3.43±0.63	3.64±0.70	-2.460*
	Control	3.42±0.66	3.59±0.67	-1.725
Regulation of emotion	Exp.	3.48±0.75	3.71±0.80	-2.332*
	Control	3.52±0.82	3.55±0.82	-0.255

* $p<.05$, ** $p<.01$, *** $p<.001$

정서인식 명확성은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t=-2.189$, $p<.05$), 성격심리학($t=-2.254$, $p<.05$) 수업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수업 유형과 무관하게 정서인식 명확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8. Difference in empathy according to psychological subject

Variables	Subject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 clarity	Exp.	3.49±0.42	3.61±0.43	-2.189*
	Control	3.40±0.42	3.55±0.46	-2.254*

* $p<.05$, ** $p<.01$, *** $p<.001$

인지적 공감은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t=-2.537$, $p<.05$) 수업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관점 취하기는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t=-2.723$, $p<.01$) 수업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습 위주의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9. Difference in empathy according to psychological subject

Variables	Subject	Pre-test	Post-test	t-value
Empathy	Exp.	3.63±0.36	3.72±0.41	-1.864
	Control	3.63±0.38	3.66±0.37	-0.649
Cognitive empathy	Exp.	3.78±0.41	3.93±0.48	-2.537*
	Control	3.74±0.47	3.77±0.44	-0.493
Perspective taking	Exp.	3.77±0.50	3.95±0.53	-2.723**
	Control	3.74±0.59	3.75±0.54	-0.104

Fantasy	Exp.	3.79±0.62	3.90±0.62	-1.345
	Control	3.73±0.61	3.79±0.57	-0.659
Affective empathy	Exp.	3.46±0.41	3.50±0.46	-0.618
	Control	3.51±0.50	3.55±0.44	-0.565
Empathic concern	Exp.	3.68±0.52	3.80±0.60	-1.638
	Control	3.64±0.67	3.74±0.62	-1.063
Personal distress	Exp.	3.21±0.59	3.14±0.66	0.769
	Control	3.36±0.68	3.33±0.55	0.364

* $p<.05$, ** $p<.01$, *** $p<.001$

3.3 성별 변화

연구대상의 수업 유형과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여자가 감성지능($t=-2.910$, $p<.01$), 감성조절($t=-2.500$, $p<.05$)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정서를 처리하여 문제행동을 회피하는 능력은 여자에게는 실습 수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0.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der(Experimental group)

Variables	Gender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al intelligence	Male	3.86±0.45	3.95±0.43	-0.997
	Female	3.62±0.35	3.83±0.48	-2.910**
Self emotion appraisal	Male	4.01±0.54	4.12±0.52	-0.915
	Female	3.92±0.52	4.07±0.52	-1.742
Other's emotion appraisal	Male	4.08±0.58	4.10±0.50	-0.141
	Female	3.88±0.55	4.03±0.57	-1.595
Use of emotion	Male	3.60±0.65	3.79±0.64	-1.317
	Female	3.33±0.60	3.56±0.72	-1.973
Regulation of emotion	Male	3.74±0.71	3.82±0.73	-0.477
	Female	3.33±0.73	3.66±0.83	-2.500*

* $p<.05$, ** $p<.01$, *** $p<.001$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남자가 정서인식 명확성($t=-2.138$, $p<.05$)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실습을 통하여 남자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1. Difference in empathy according to gender (Experimental group)

Variables	Gender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 clarity	Male	3.54±0.38	3.71±0.30	-2.138*
	Female	3.46±0.44	3.56±0.48	-1.262

* $p<.05$, ** $p<.01$, *** $p<.001$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남자가 인지적 공감($t=-2.917$, $p<.01$), 관점취하기($t=-3.272$, $p<.01$), 상상하기($t=-1.762$, $p<.05$)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남자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2. Difference in empathy according to gender (Experimental group)

Variables	Gender	Pre-test	Post-test	t-value
Empathy	Male	3.53±0.32	3.66±0.32	-1.886
	Female	3.68±0.36	3.75±0.46	-1.060
Cognitive empathy	Male	3.74±0.37	3.97±0.34	-2.917**
	Female	3.80±0.44	3.90±0.54	-1.275
Perspective taking	Male	3.81±0.37	4.07±0.32	-3.272**
	Female	3.74±0.55	3.88±0.62	-1.477
Fantasy	Male	3.66±0.53	3.87±0.53	-1.762*
	Female	3.86±0.66	3.92±0.68	-0.554
Affective empathy	Male	3.31±0.40	3.34±0.41	-0.311
	Female	3.54±0.40	3.59±0.47	-0.658
Empathic concern	Male	3.67±0.46	3.81±0.50	-1.263
	Female	3.68±0.55	3.79±0.65	-1.140
Personal distress	Male	2.89±0.58	2.79±0.60	0.741
	Female	3.38±0.51	3.35±0.61	0.321

* $p<.05$, ** $p<.01$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여자가 감성지능($t=-2.358$, $p<.05$), 자기감성이해($t=-2.167$, $p<.05$)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론 수업은 여자에게 감성지능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3.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der(Control group)

Variables	Gender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al intelligence	Male	3.81±0.43	3.86±0.41	-0.499
	Female	3.59±0.36	3.77±0.47	-2.358*
Self emotion appraisal	Male	3.80±0.55	4.03±0.50	-1.730
	Female	3.78±0.60	4.02±0.64	-2.167*
Other's emotion appraisal	Male	4.03±0.62	4.05±0.50	-0.111
	Female	3.89±0.46	4.01±0.66	-1.212
Use of emotion	Male	3.44±0.78	3.57±0.64	-0.750
	Female	3.41±0.60	3.60±0.69	-1.603
Regulation of emotion	Male	3.96±0.65	3.79±0.83	0.942
	Female	3.28±0.80	3.43±0.79	-1.041

* $p<.05$, ** $p<.01$, *** $p<.001$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여자는 정서인식 명확성($t=-3.012$, $p<.01$)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론 수업은

여자에게 정서인식 명확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4. Difference in empathy according to gender (Control group)

Variables	Gender	Pre-test	Post-test	t-value
Emotion clarity	Male	3.58±0.44	3.58±0.48	0.026
	Female	3.31±0.39	3.53±0.45	-3.012**

** $p<.01$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은 공감능력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15. Difference in empathy according to gender (Control group)

Variables	Gender	Pre-test	Post-test	t-value
Empathy	Male	3.61±0.36	3.61±0.33	-0.008
	Female	3.64±0.40	3.69±0.39	-0.743
Cognitive empathy	Male	3.73±0.43	3.72±0.42	0.049
	Female	3.74±0.49	3.79±0.45	-0.606
Perspective taking	Male	3.79±0.57	3.69±0.62	0.685
	Female	3.71±0.60	3.78±0.50	-0.650
Fantasy	Male	3.67±0.53	3.76±0.45	-0.722
	Female	3.77±0.64	3.80±0.62	-0.330
Affective empathy	Male	3.49±0.51	3.49±0.39	-0.060
	Female	3.53±0.50	3.58±0.46	-0.625
Empathic concern	Male	3.66±0.69	3.69±0.57	-0.205
	Female	3.64±0.66	3.77±0.65	-1.147
Personal distress	Male	3.29±0.73	3.27±0.54	0.142
	Female	3.40±0.66	3.36±0.56	0.35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양강좌로 개설된 심리학 수업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감성지능,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S대학교 2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실험군과 이론 중심의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대조군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한 학기 시작 시점과 15주간의 수업이 진행된 이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 수업의 유형과 무관하게, 전체 연구대상 은 감성지능과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 수준이 향상

되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성지능은 자기 감성이해, 감성활용이 향상되었고,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에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학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Social-emotional learning[34] 커리큘럼과, 영국의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커리큘럼[38], 캐나다의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39]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반면 정서인식 명확성이 향상된다는 기존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양수업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에서는 감성지능, 감성활용, 감성조절이, 성격심리학 수업에서는 감성지능, 자기감성이해가 향상되었다. 심리학에서 감정(feeling)과 정서(emotion)는 혼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정서와 감성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과 감성은 다른 것으로, 감정은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으로 보는 반면에 감성은 원초적으로 일어난 감정을 뇌에서 이성적으로 통제함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 안에서의 순화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41]. 따라서 성격심리학의 경우 다양한 이론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이면에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과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과제 등을 통해 일차원적인 감정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글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여과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신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에 심리적 기제를 통해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들 혹은 감정들을 바라보는 기회가 없었음을 제출된 과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격심리학을 수강하기 전에는 성격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성격의 심리적 기제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의 부분들을 도외시하였음을 인지하게 된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는 정서지능과 관련하여 정서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42].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은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독서치료의 이론적 근간에서부터 출발되는 영화치료는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이내에 모든 스토리의 플롯과 주제 및 등장인물들을 통해 시각, 청각, 문자 언어를 동원한 감정이입 혹은 팝진성이 가능한 매체라는 친숙하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의 감각이 영화를 보는 동안 생생하게 만들어지고 시각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43]. 따라서 영화 감상을 통해 학생들은 감정이 고양되고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며 영화 속 등장인물이나 상황에서 동일시와 투사를 깨닫게 되고 중국에는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이끌어 줄 수 있게 된다[44]. 고양된 감정에서 자신의 삶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해 유의한 향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공감능력에서는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에서만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즉,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수업보다는 실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감상할 때, 감상자는 자신과 등장인물 사이에서 동일시 과정을 경험하는데, 유사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정서가 증가하고 방어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시 과정과 더불어 등장인물의 행동과 동기를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상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36].

심리학 수업 유형에 따라서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다른 영역이 향상되었으며, 변화량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수업 유형의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교육 목적에 따라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교육의 순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신의 정서를 먼저 이해한 후에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심리학 수업을 진행한 다음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Cox[45]는 실습교육에 앞서 지식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을 준비시킨 다음, 경험과 성찰 단계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구조화된 학습 모형으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리학 수업 순서와도 부합한다.

성별에 따라서도 수업 유형에 따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학생에게서만 감성지능이 향상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이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희[4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학 수업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들 변수 중, 정서인식 명확성은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행연구에서 정의되는 것처럼 별개의 변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정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가 되는 정서인식 명확성은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인지까지를 포함하

며, 정서 조절의 기본이 된다[15]. 따라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향후에도 독립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서인식 명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 교과 과정은 감성지능과 정서인식 명확성, 공감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영화로 만나는 치유심리학 수업에서 보다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실습이 포함된 심리학 수업은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H. Gwak, K. E. Yang, "Education Differentiated based on Emotion and Personality", OUGHTOPIA, Vol.33, No.3, pp.209-242, Nov. 2018.
DOI: <https://dx.doi.org/10.32355/UGHTOPIA.2018.11.33.3.209>
- [2] D. C. Funder, "Accuracy in personality judgment: Research and theory concerning an obvious question", In B. W. Roberts & R. Hogan (Eds.), *Decade of behavior. Personality psychology in the workplace*. p.121-14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DOI: <https://dx.doi.org/10.1037/10434-005>
- [3] A. Y. Noh, Y. S. Kang, "Personality psychology : for understanding and growth of human being", Hakjisa, Seoul, p.27, 2019.
- [4] K. H. Min, "Emotional Studies in Personality Psychology", *Research Problems in Psychology*, No.4, pp.233-254, Feb. 1997.
- [5] E. J. Lee, Y. H. Kim, "Effects of Mother's Marital Adjustment, Depression, Anxiety, and Emotional Response on Emotional Regulat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9, No.1, pp.47-60, June 2015.
- [6] H. W. Lee, M. H. Lee, "Impact of Mood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xpressing Emotion of College Students on Self-Efficac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29, No.3, pp.181-200, Sep. 2013.
- [7]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March 1990.
DOI: <https://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8] S. H. Nam, S. E. Lee, J. Y. Chang, H. Y. Choi,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urnover behaviors among call center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29, No.2, pp.157-174, May. 2016.
- [9] K. H. Shin, R. Yi, C. G. Heo, J. Y. Kim, "The role of Big Five personality and job environment variables in prediction of emotional Labor: Hotel employee case in U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9, No.1, pp.105-124, Feb. 2006.
- [10] L. M. Prati, J. H. Karrker, "Emotional intelligence skills: The building blocks of defence against emotional labor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 Organization and Emotion*, Vol.3, No.4, pp.317-335, Sep. 2010.
DOI: <https://dx.doi.org/10.1504/IJWOE.2010.035322>
- [11] J. J. Jeong, "Introduction to psychology", Knowledge Community, Goyang City, pp.320-328, 2016.
- [12] J. M. Gottman, L. F. Katz, C. Hoove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0, No.3, pp.243, 1996.
DOI: <https://dx.doi.org/10.1037/0893-3200.10.3.243>
- [13] S. J. Lee, H. K. Lee,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1, No.1, pp.95-116, May 1997.
- [14] I. D. Yalom, *Existential Psychotherapy*. Basic Books, 1980.
- [15] J. D. Mayer, Y. N. Gaschke,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1, p.102,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5.1.102>
- [16] P. Salovey, J. D. Mayer, S. L. Goldman, C. Turvey, T. P.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125-154, 1995.
DOI: <https://dx.doi.org/10.1037/10182-006>
- [17] N. Schwarz, G. L. Clore,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5, No.3, pp.513-523, 1983.
DOI: <https://dx.doi.org/10.1037/0022-3514.45.3.513>
- [18] B. M. Kim, S. G. Cho, J. H. Lee, "A study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based on empathy ability: Using eye-tracker",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7, No.1, pp.49-65, Feb. 2013.
DOI: <https://dx.doi.org/10.21193/kispp.2013.27.1.004>
- [19] C. Anderson, D. Keltner, "The role of empathy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Vol.25, No.1, pp.21-22, Feb. 2002.
DOI: <https://dx.doi.org/10.1017/S0140525X02230010>

- [20] M. La France, W. Ickes, "Posture mirroring and interactional involvement: Sex and sex typing effect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Vol.5, No.3, pp.139-154, March 1981.
DOI: <https://dx.doi.org/10.1007/BF00986131>
- [21] G. H. So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ral Self, Self-Control, Empathy, and Mor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Dong-A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2012.
- [22] Y. S. Kang, "The Influence of the Verse Activity Program on the First Elementary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7.
- [23] Y. L. Moon, "Professor Mun-Yong Lin's lecture on emotional intelligence", Booksnut, Seoul, pp.203-221, 2011.
- [24] S. Yang,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young children's bibliotherapy program based on the response-based approach",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2013.
- [25] R. Krznaric,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Random House, pp.73-82, 2014.
- [26] A. R. Lim, "Study of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9, pp.103-110, 2019.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9.20.9.103>
- [27] E. S. Choi, H. J. Bang,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6, No.1, pp.17-39, March 2013.
- [28] D. W. 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Traits on English Learning Flow, Ph.D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96, 2016.
- [29] J. Y. Cho, "Development of the Brain-based Teaching Model for the Emotion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12, No.2, pp.369-391, 2001.
- [30] D. Pink, "A Whole New Mind", Riverhead Books, New York, pp. 177-184, 2006.
- [31] A. R. Lim, "A Study on Interactive Cinemapsychotherapy Class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109-115, June 2020.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20.21.6.109>
- [32]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4324/9781315250601-10>
- [33] Y. J. Jeon, S. B. Lee, "The Effects of Employees' Personality Traits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the Deluxe Hotel",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 26, no. 3, pp. 395-412, 2011.
- [34]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1, pp.113,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35] S.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5, No.5, pp.143-166, 1996.
- [36] Y. S. Shim, "2019 KIFA movie list for Cinematherapy and Cinemaworkshop", Shimyoung publish, Seoul, pp.46-62, 145-151, 157, 2019.
- [37] M. J. Elias, H. Arnold, "The educator's guide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al-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Corwin Press, 2006.
- [38]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Excellence and enjoyment: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Guidanc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UK, 2005.
- [39] M. Gordon,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2005.
- [40] R. Krznaric,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Random House, pp. 73-82, 2014.
- [41] J. Y. Cho, "Development of the Brain-based Teaching Model for the Emotion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12, No.2, pp.369-391, 2001.
- [42] S. W. Ro, "Emotion Discourse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hilosophy",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34, No.1, pp.71-97, 2012.
- [43] N. W. Song, "The Fundamental Theory of Cinema Therapy", *Film Studies*, Vol.0, No.57, pp.169-201, Sep. 2013.
- [44] S. S. Kim, C. Y. Ahn,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inema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005, No.1, pp.360-361, June 2005.
- [45] K. Cox, "Planning bedside teaching. I: Overview",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158, No.4, pp.280-282, 1993.
- [46] K. H. Kim, "A Convergence Study about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 Meta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25-33, Dec. 2017.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7.15.12.25>

임 애 려(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3년 ~ 2018년 3월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